

#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 코로나19, 뒤바뀐 미래



최은지 | 대구 영신초등학교 5학년

올해 2월 19일을 난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안 가도 된다는 것, 아니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 마냥 좋았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인 대구의 코로나19 하루 확진환자가 50명, 148명, 340명, 741명 등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 아빠는 환자들을 돌봐야하는 의사이지만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하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하시고 아빠도 잘 모르는 질병이어서 더 무섭다고 하셨다.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 2~3배 더 빨리 퍼지고 5~20배 더 치명적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나를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뉴스를 보니 대구의 도심은 텅텅 비어서 유명도시처럼 변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 아빠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데 아빠는 열이 안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인줄 모르고 마스크를 끼고 그 환자 목을 봐줬는데, 그 환자가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병원 문을 닫고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은 집에 와서 자가격리를 한다던데 아빠는 아무 증세는 없지만 혹시나 엄마랑 내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아빠 병원에서 혼자 주무신다고 하셨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빠인데 아빠 얼굴을 직접 못 보고 2주 동안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영화같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일단 우리 집에 생긴 변화는 엄마는 평소에도 깔끔하셨지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꼼꼼히 자주 하신다. 심지어 내 공부방의 책꽂이에 꽂힌 책도 한 권 한 권 다 닦으신다. 엄마는 조금씩 자주 장을 봐오셔서 그때그때 신선한 음식들을 요리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셔서 많은 식료품들을 사오셨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고 택배로 받으셨다. 잠시 외출을 하고 집에 오시면 바로 욕실로 들어가셔서 씻고 나서서 나를 안아주신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유일하게 외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 넘도록 건강함이 느껴지게 하는 집밥만 먹고 있다. 그리고 여름이면 늘 외국에 열흘 정도 휴가를 갔었는데 외국은커녕 국내 어떤 곳도 못가고 ‘집순이’가 되었다. 학교는 3월 개학을 못하고 4월에서야 실시간 온라인수업이라는 방식으로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컴퓨터로 만났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던 학원들 모두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그 무엇보다 큰 변화는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 ‘어디 아픈가?’ 하며 주의했지만,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매너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동네 빵집이나 마트를 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팻말이 붙어있다.

사실 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람 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회적 거기두기를 하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하지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접촉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선 학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면수업보다는 원격수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나의 경우엔 엄마와 아빠가 수업 후 그날그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은 좀처럼 집중을 못 하는 게 느껴졌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체험적이고 즐겁게 만들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게임화와 같은 핵심 기술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생겨나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것 같다.

또한 소위 ‘집순이’로 살 수 있도록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이미 활성화된 택배와 배송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먹고 자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생활이나 집에서 놀고 즐기는 문화가 커질 것이다. 우리 아빠의 경우에는 퇴근 후에 일주일에 세 번 이용하시던 헬스장이 두 달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열었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운동을 해야 하고 러닝머신도 붙여서 이용하는 것이 금지라고 해서 아빠는 헬스장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신다. 우리 아빠처럼 나만의 공간에서 운동, 영화감상, 요리 등 취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과 만남이 줄었지만,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커질 것이다. 더불어 외숙모를 보니 LG 라는 대기업에 15년째 다니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이후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서 컴퓨터로 근무를 하시는 날이 더 많다고 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피스 문화 역시 붕괴될 것이다. 굳이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은 만큼 근무환경 변화도 점차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에선 일부 섀다운이 진행되고 많은 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이동을 줄이는 등 활동을 일시 멈췄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공기는 깨끗해지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탈리아의 운하가 많아졌다는 소식도 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 멈춤을 진행했지만, 그로 인해 지구촌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웃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를 떠나 교외에서 생활하는 문화도 자리 잡을 것이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밖을 다니지도 못하는 이 시기가 참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슬픔 속의 소소한 기쁨은 언제나 있기에 이 사태를 무작정 원망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 고마움을 느껴보려 노력했다. 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두렵고 불편해 보였던 것이 해보고 나니 그 속에 있는 장점들도 보였다. 온라인수업으로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등하교 시간이 없어서 생긴 여유시간에 원하는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었다. 비록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의 종식에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난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언젠가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